

# 목포시 '택시 안심 귀가서비스' 시행

### 이달부터 차량번호·승하차시간·위치정보 등 실시간 제공

### 스마트폰 전용 앱 내려받아 실행...블루투스 이용 비접촉 방식

목포시는 이번 달부터 개인택시 928대와 법인택시 622대 등 모두 1548대에 '택시 안심 귀가서비스'를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안심 귀가서비스'는 승객이 블루투스 송신기가 설치된 택시에 승·하차시, 본인이 등록된 사람에

게 자동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택시를 이용할 경우 어디서 어떤 택시를 승차하고, 어디에서 하차했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안심 귀가서비스를 이용하기 위

해서는 스마트폰에 목포 안심택시 전용 앱을 내려받아 실행해야 한다.

처음 앱을 사용할 때 본인의 승·하차 정보를 보낼 상대방 전화번호를 등록하고 실행버튼을 클릭하면 계속 자동 실행된다.

위치정보는 GPS를  $\alpha$ 로 설정하

는 경우에만 문자가 전송되므로 필요에 따라 활용하면 된다. 안심 귀가서비스가 블루투스를 이용한 비접촉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택시기사와 승객의 거부감이 없어 쉽게 정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안심 귀가서비스가 활성화되면 밤늦게 귀가하거나 인적이 드문 곳을 이동하는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면서 "서비스 질도 개선돼 택시업계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국토교통부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3차 선도사업 예비대상지로 선정된 영암군 군서면 월곡 임대아파트. 영암군은 12년째 방치되면서 흉물로 전락한 임대아파트의 재건축이 이뤄질 경우 주민들의 주거 안정성 확보는 물론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 '12년 방치' 영암 임대아파트 재건축 청신호

### 국토부 공사중단 장기방치 선도사업 예비 대상지로 선정

공사 중단으로 12년째 장기 방치되면서 월출산 경관을 해치고 있는 임대아파트의 재건축에 청신호가 켜졌다.

영암군은 군서면 월곡 임대아파트가 2018년 국토교통부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3차 선도사업 예비대상지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대상지로 선정된 임대아파트는 주변 개발여건 등을 감안해 국토부와 LH의 사업타당성 조사를 통해 본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된다.

사업대행자인 LH는 향후 사업주체와의 협상, 토지 인수, 자치단체 추진의지, 개발수요 발굴 등의 사업성에 대한 재분석을 토대로 5월 본사업 추진여부를 확정할 계획이

다.

이 임대아파트는 2000년 4월26일 전용면적 86㎡(구 32평형) 297세대 건축이 시작됐으나 지난 2005년 11월30일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12년간 방치되면서 국립공원 월출산의 경관을 해치고 흉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영암군 관계자는 "군은 선도사업 평가기준인 자치단체의 추진의지와 사업 용이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공사가 재개되면 지역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고 인구배기는 물론 지역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은홍 기자

## 곡성군, 소비자 선호형 소과류 생산단지 집중 육성

### 과수산업 체질 개선으로 체리·플럼코트 주산지로



곡성군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소과류 생산단지를 집중 육성해 체리, 플럼코트 주산지로 발돋움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과일 소비가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외국산 과일이 빠르게 우리식탁을 점령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과일 산업의 피해로 이

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내 과일시장은 껍질을 깬 과일 큰 과일,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과일에서 벗어나 바로 먹을 수 있고,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 편이성이 높은 과일의 소비 또한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체리의 수입량 급증이다. 2015년 기준 미국산 체리의 수입국 중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 대만보다 높은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체리 소비량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과일 소비패턴의 변화에 따라 곡성군은 체리, 플럼코트, 자두, 미나사과 등 소과류 재배면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군은 2018년부터 국비 공모사업과 군 자체사업으로 소과류 식재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

며, 올해엔 6억7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한다. 2020년까지 체리, 플럼코트 등의 소과류 단지를 70ha까지 확대 조성하여 곡성군 과수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생각이다.

체리, 플럼코트가 수확되는 6월~7월은 많은 관광객이 곡성을 방문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기차마을, 섬진강 등 기존의 관광상품과 연계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광자원화 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또한, 성공적인 소과류 재배단지 육성을 위해서는 농업인의 역량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곡성군은 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해 매년 10회 이상의 재배기술 교육 및 현장 견학을 추진하고 있다.

유근기 곡성군수는 "매실, 감 등 기존 곡성군의 주력 과수산업이 위축됨에 따라 과수산업의 변화가 절실한 상황이다"며, "새로운 농가소득원 창출을 위해 소과류 생산 단지를 집중 육성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광희 기자

## "섬지역 야간 작업도 이전 문제없어요"

### 해남 어불도 안전지킴이 태양광 안심가로등 설치

해남 어불도에 태양광 안심가로등이 설치됐다.

이번 사업은 한국수력원자력(주)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협력 후원으로 사회복지법인 밀암복지재단에서 안심가로등길 조성사업비 5억원을 지원해 실시됐다.

이에따라 송지면 어불도 일원에는 지난해 말까지 태양광으로 작동하는 LED 안심가로등 50개를 설치하고 주변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해남 어불도는 도서지역 특성상 고령화 비율이 높고 야간 작업이

빈번해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LED 가로등은 충전된 태양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가 대폭 절감되며 자정이 지나면 주변 동식물 성장을 위해 밝기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어 친환경적이다.

특히 낮 시간동안 충전해 최소 7일까지 불을 밝힐 수 있고 장마철에도 문제가 없어 섬 주민들의 생활이 한층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곡성기차마을 전통시장 상인회 신규회장단 이취임식

### "시장 활성화 방안 함께 만들자"

곡성기차마을 전통시장 상인회는 지난 3일 상인회 사무실에서 신규회장단 이·취임식을 갖고 제4대 김용기 회장이 이임하고 제5대 김용(69세, 오곡면) 회장이 취임했다.

이취임식 행사에는 전남상인연합회(동부권) 조동욱 부회장을 비롯한 기관사회단체장, 상인회원 등 60여 명이 참석해 축하했다.

오재환 경제과장은 축사를 통해 "제4대 상인회장으로 최선을 다하신 김용기 회장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새롭게 취임 하시는 김용 회

장님의 열정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시장 활성화 방안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김영 신임 상인회장은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대형마트와 경쟁 속에서 당당하게 싸워 이기겠다는 일념으로 시장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군 관계자는 "올해도 특별교부세 3억원을 투자하여 전통시장 챌린지숍 설치, 산학협력 사업 유치, 주말 시장 운영 등 언제나 다시 찾고 싶은 시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곡성=김광희 기자

## 담양 금성면, 따뜻한 손길 이어진다

담양 금성면은 최근 금성농공단지 내에 위치한 태성전기 주식회사(대표 신국수)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일천민원을 '희망2018 나눔캠페인'에 지정 기탁해왔고, 운동기구가 필요한 관내 금성노인요양원과 저소득 4가구에 성품이 전달됐다고 전했다.

이어 금성면 원율리에 거주하는 김현중(금성농약사 운영) 씨는 50만원 상당의 라면 25박스를 면사무소에 전달해왔다. 김 씨는 매년 폐휴지 판매 수익금으로 소년·소녀가정 등을 12년 동안 도와온 수호



천사다.

이처럼 금성면장은 "러면은 경로당 및 어려운 가정에 전달할 계획이며,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변함없는 정성을 모아주시는 후원자님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 ◆ 광주 지역 안내

계림 010-3635-7195	백운 010-2943-8374
중앙 010-3365-6200	광산 010-5604-6533
학운 010-4166-1810	송하 010-8620-1925
광천 010-6612-8599	임동 010-2656-4543
금호 010-6636-2775	양산 010-2646-3205
상무 010-5359-7406	오치 010-7532-3313
풍암 010-6634-5084	북구 010-4601-2080
화정 010-8438-3819	동운 018-611-7751
봉선 010-9474-0212	용봉 010-4601-2080
진월 010-2615-8374	두암 010-2684-6091

### ◆ 시 외 안내

강진 010-4606-0660	영암 010-5655-2415
담양 010-3629-9016	완도 010-9578-5900
무안 010-5234-2313	장성 010-5287-7711
보성 061-853-9125	장흥 010-6234-6226
순천 010-2300-9083	진도 010-3081-5203
광양 010-5604-6981	함평 010-3625-3160
여수 010-6655-8503	화순 010-2077-6464
영광 010-3611-3081	곡성 010-3615-1088

화순 이서적벽

“지역언론의 바른길을 열어갑니다”

# 湖南新聞

전라도의 정문지

▶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및 독자 의견 (062) 224-5800

이메일 : ihonam@naver.com

팩스 : (062)222-5548

▶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 번지 정도프라자 5층)